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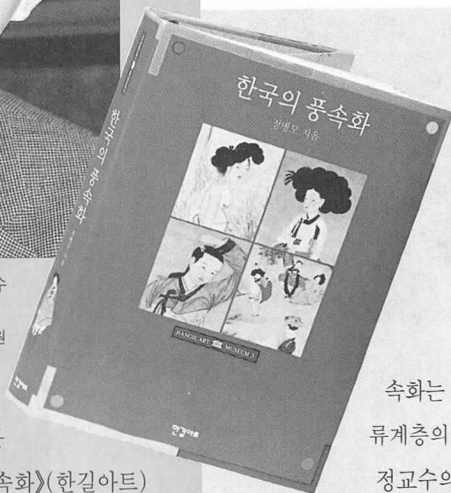
정병모 교수

한길아트/B5/464면/40,000원

하층민의 생활상 형상화한 풍속화의 궤적

《한국의 풍속화》 펴낸 정병모 교수

통속적 생활상을 묘사해온 풍속화는 지배계층에 의해 저속한 문화로 폄하돼왔다. 하지만 풍속화의 전통은 선사시대의 암각화에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정병모 교수는 이 책에서 종교적·정치적·통속적 풍속화로 나눠 풍속화의 변화와 발전과정을 고찰한다. 정교수는 조선후기의 풍속화가 근대 이행기의 문화적 징후였다고 강조한다.



정병모 교수(42, 경주대 문화재학과)의 《한국의 풍속화》(한길아트)는 민간의 생활상을 표현해온 풍속화를 회화사적으로 고찰한 책이다. 풍속화·판화·민화를 중심으로 통속문화 연구에 몰입해온 저자의 첫 번째 학문적 결실로,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김홍도의 <씨름도> 연구로 풍속화와 인연을 맺은 지 20년만에 거둔 성과다.

풍속화의 역사적 성격 분석해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확대·보완한 이 책은 한국 풍속화를 신앙과 종교의 기원에 의해 제작된 풍속화, 정치적 필요에 의해 제작된 풍속화, 통속적인 생활상을 표현한 풍속화 등으로 유형화해 각 시대별 풍속화의 역사적 성격을 분석한다. 풍속화를 연구해온 학자들이 적지 않지만 풍속화를 체계적으로 유형화해 역사적으로 고찰한 것은 정교수가 처음이다.

“저는 풍속화의 개념을 넓게 잡았습니다. 풍속화는 인간의 삶과 밀착된 회화장르로서 인간의 흥망성쇠와 운명을 함께 합니다. 하지만 시대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제별 분류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신앙을 표현한 풍속화는 삼국시대의 고분벽화, 발해의 고분벽화, 그리고 조선시대의 감로도 등으로 이어진다. 정치와 관련된 풍속화는 고려시대 빈풍칠월도류 회화부터 조선시대 삼강행실도류 판화 등으로 제작됐다. 통속세계를 그린 풍

속화는 조선후기부터 등장해 하류계층의 생활감정을 표현했다.

정교수의 학문적 역량이 돋보이는 부분은 풍속화와 근대성의 관계를 밝힌 대목이다. 그는 하층문화와 상층문화의 관계 속에서 근대성 문제를 풀어간다. 조선 후기 풍속화는 중세의 신분사회에서 근대로 가는 이행기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며 이를 ‘근대적 풍속화’로 정의한다.

“18세기에 이르면 하층문화와 상층문화의 역학관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상류계층의 고급문화에 비해 하층민의 통속문화가 급격하게 부각되죠. 봉건적 이데올로기에 억압됐던 신분계약이 느슨해진 것이 이런 문화변동의 동력이었습니다.”

이 때부터 통속세계에 대한 사대부 계층의 편견이 극복되기 시작한다. 사대부가 추구하는 아취세계(雅趣世界)에 비해 저급한 문화로 폄하되던 통속세계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시작한 것이다. 김홍도·신윤복·김득신 등에 의해 꽃핀 조선 후기 풍속화는 근대화화의 전주곡이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풍속화가 쇠퇴합니다. 김정희가 주도한 문인화의 부흥 때문이란 것이 학계의 시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를 풍속화의 저변확대로 해석합니다. 풍속화가 질적으론 쇠퇴하지만 양적으론 오히려 늘어나죠. 풍속화에 대한 상류계층의 수요가 하층민으로 확산된 현상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발견된

다. 근대 초에 풍속화가 유행한 것이 조선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17세기에 세속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풍속화가 등장하고, 일본에서도 16세기 말과 17세기에 지배계층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가 활발하게 제작된다. 풍속화가 근대를 향한 문화적 징후였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

오늘에도 그 맥을 잇고 있는 풍속화의 전통

정교수는 풍속화의 전통이 오늘날에도 그 맥이 끊이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예컨대, 신문의 만평이 통속적 풍속화라면, 1980년대의 민중미술은 정치적 풍속화였다는 것이다. 성·마약·질병·인종차별 등을 형상화한 현대미술도 풍속화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한다.

“풍속화는 각 시대마다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했습니다. 조선후기의 풍속화는 신분차별, 처첩갈등, 종교의 타락상 등을 회화화했습니다. 1980년대의 민중미술은 독재에 저항하는 표현양식이었죠. 당대의 사회적 모순을 극복하는 역동적 힘을 풍속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교수는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외의 소득을 얻기도 했다. <삼강행실도> 판화의 밑그림을 안견이 그렸다는 사실을 실증한 것이다. 규장각에 있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의계>에서 “삼강행실도의 그림은 예로부터 서로 전하기를 안견의 필이라 하였고...”라는 대목을 찾아냈던 것이다. 이전에는 다만 안견·최경·안귀생 등이 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을 뿐이었다. — 박천홍 기자